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독서 텍스트와 지식

임권의T

(회파27)

반갑습니다. 임권의입니다.  
오늘은 독서 자료를 올리고자 합니다.

학생들이 독서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저는 그 대표적인 이유로 '생소함'을 꼽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이거나, 몇 년간 들어본 적이 없는 내용을 접해서 지문 내용에 무작정 겁부터 먹는 학생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인문계 학생들에게는 과학 기술 지문이, 그리고 경제를 배우지 않은 모든 학생들에게는 경제 지문이 정말 까다롭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험부족'의 문제도 충분히 기인한다고 단언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자료는 경제 지문의 배경지식입니다. 다 보면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단언합니다. 다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절대 여기 있는 정보를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최대한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나름대로 수능 / 평가원 모의고사 안에 있는 지문들을 최대한 풀어쓴 내용이며, 그 시험 안에서 반복해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내용에 대한 해설입니다. 암기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이해하면 어차피 외워진다'는 마인드로 봐주세요. 수능 경제 지문의 핵심은 '이해와 적용'입니다. 수학적인 매커니즘이 은근히 섞인(분수, %의 문제 등) 부분을 분명히 머릿속으로 떠올리며, 이를 적용할 줄 알아야 <보기>문제를 효과적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수능 문제에서 나온 BIS 문제도 분수에 대한 매커니즘을 적용했어야 풀 수 있었고, 매년 경제 문제는 평가원에서 단순 일치로 풀지만은 않았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 배경지식 자료를 읽으며, 경제 지문에 대한 공포감을 해소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생소함'을 극복하고, 적용에 대한 자신감을 기른 후 다시 기출에 적용 / 사설 모의고사에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경제 지문은 여러분들에게 공포의 지문이 아닌, '출제돼서 고마워' 지문이 될 것입니다.

## 1. 경제

### 0. 경제란?

#### 1. 기초중의 기초

- (1) 수요와 공급
- (2) 경제 변수들과 원리

#### 1-2. 미시경제학

- (1) 금융상품
  - 1) 보험
  - 2) 채권
  - 3) 조세와 그래프의 이동

#### 1-3. 거시경제학

- (1) 환율과 수출입
- (2) 경기와 경제안정화 정책

0. 경제란?

세상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상품은 실체가 있는 금·책·다이아, 서비스는 실체가 없는 미용서비스, 금융서비스 등을 떠올리자)는 무한하지 않은 반면, 사람들의 욕망은 끝이 없다. 제공될 수 있는 전체 양보다 더 많이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며, 이는 소비·생산·투자자와 같은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처럼 경제는 사람들과 집단(기업, 정부, 국가 등)의 욕망과 선택, 행동과 그 결과를 모두 포함하는 사회적 현상이다.

1. 기초 중의 기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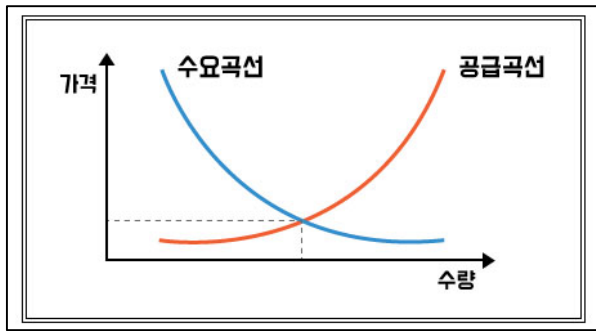
1) 수요와 공급

경제는 수요와 공급으로 움직인다. ‘사과’라는 상품으로 예시를 들어보자

수요자, 즉 구매자는 사과를 구매하고 싶은 사람이다. 이들은 사과의 가격이 비쌀수록 적게, 쌀수록 더 많이 구매하고 싶어한다. 사과 가격이 10원이면 1개, 9원이면 2개, 8원이면 3개...처럼 말이다. 이때 가격은 수요자가 사과 하나에 대해 ‘최대한 지불하고자 하는 의사가 얼마인지’로 해석된다. 만약 희파T가 사과를 2개 사고 있다면, 그는 사과 하나에 대해 9원까지만 지불하지, 절대 더 높은 가격에 사지 않을 것이다.

공급자, 즉 판매자는 사과를 판매하고 싶은 사람으로, 이들은 가격이 비쌀수록 더 많이 팔고 싶어한다. 예로 사과 가격이 8원이면 1개, 9원이면 2개, 10원이면 3개 판매한다고 하자. 이때 가격은 공급자가 그 상품 하나에 대해 ‘최소한 받고자 하는 의사가 얼마인지’로 해석된다. 만약 희파T가 사과를 1개 팔고 있다면, 그는 8원 이상을 받아야만 그 사과를 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모임을 ‘시장’이라고 하며, 시장에서 수요·공급 곡선이 형성된다.



이 그래프의 모양<sup>1)</sup>을 기출문제를 풀면서 한 번쯤은 봤을 것이다. 시장 판매/구매 가격, 즉 균형가격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가격 수준에서 형성된다. 위의 경우에선 9원이 균형 가격이며, 이때 사과 2개가 팔릴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과’의 자리에 다른 상품들을 넣으면 경제학의 주요 변수들이 등장한다. 사과의 자리에 ‘외국 돈을 넣으면 외국 돈의 가격, 즉 ‘환율’이, ‘경제 전체의 상품’을 넣으면 경제 전체 상품의 가격, 즉 ‘물가’가, ‘빌려준 돈’을 넣으면 빌려준 돈의 가격, 즉 ‘이자율’이 나온다.

이제, 이 변수들에 대해 더 알아보자.

2) 경제 변수들과 원리

①환율: 뉴스나 신문에서, 혹은 교과서에서 (원/달러)로 표시된 환율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쉽게 말해 환율은 “외국 돈 1단위랑 우리나라 돈 얼마가 교환이 가능할까?”를 나타낸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외국 돈 1단위를 사기 위해 우리나라 돈 얼마가 필요할까?”가 된다.

위의 수요/공급 상황에서 사과의 자리에 ‘외국 돈’을 넣어보자. 사과를 사기 위해 돈을 지불했듯이, 외국 돈을 사기 위해서도 우리나라 돈을 지불해야 한다. 외국 돈 10단위를 사는 데 10,000원을 지불했다면, 이는 외국 돈 1단위를 사는데 1,000원을 지불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환율이 ‘외국 돈의 가격’이라고 한 것이며, 지금 상황에서 환율은 1000원/1달러가 된다.

1)일반적인 경우 수요자는 짠 가격일수록 더 많이 사고, 공급자는 비싼 가격일수록 더 많이 판매한다. 따라서 수요곡선은 우하향, 공급곡선은 우상향하게 된다.

②물가: 경제 전체에는 자동차, 냉장고, 컴퓨터, 치즈, 초콜릿, 맥주, 칵테일 등등 셀 수 없는 상품들이 있다. 만약 우리가 전체 상품들을 하나의 상품처럼 보고, 계산하고, 관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의 상품처럼 묶을 때 그 가격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정해야 할 것이다.<sup>2)</sup> '물가'는 그렇게 경제 전체 상품을 하나의 상품으로 묶었을 때 정해진 가격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라는 물가가 있다 하자. 이는 소비자들이 느끼는 경제 전체 상품의 가격을 나타낸다. 기준년도의 물가지수를 100이라 하자, 그리고 각 년도의 물가지수를 계산해서 100보다 큰지 작은지 비교하면 경제 전체 상품의 가격이 기준년도에 비해 싸졌는지, 비싸졌는지를 알 수 있다.

예로 오르비국에서 (사과, 귤)만 판매하고 2020년에는 그 가격이 (8,10)원이었는데 21년에 (10,8)원으로 변했다고 하자. 두 년도 모두 생산량은 (5,10)개라고 가정한다.

2020년을 기준으로 하는 2021년 소비자물가지수는  $\frac{\text{지금가격} \times \text{기준년도생산량}}{\text{기준년도가격} \times \text{기준년도생산량}}$ 에 100을 곱한 값으로 나타난다. 이를 계산해보면  $\frac{130}{140} \times 100$ 으로, 100보다 작은 값이 된다. 따라서 2021년의 물가는 2020년보다 더 하락했고, 전체 상품은 작년에 비해 싸졌다고 할 수 있다.

③금리: 우선, 금리는 이자율과 같은 말이다. 누가 남에게 돈을 빌려가면, 어느 기간 후에 빌려간 액수(원금)와 이자를 받는다. 이때 이자는 돈을 빌려준 댓가로 받는 것으로, '빌려준 돈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예로 A가 B에게 100만원을 1달동안 이자율 10%로 빌려줬다면, 1달 뒤에 B는 A에게 원금 100만원과 이자 10만원, 합쳐서 110만원을 갚을 것이다.

이런 경제 변수들은 한 요소가 변화하면, 여러 변수가 연쇄적으로 변화한다. 예로 정부가 이자율을 올리면, 사람들은 돈을 빌리면 갚아야 할 액수가 커지므로 대출을 덜 받으려 할 것이다. 그래서 돈을 빌려 집을 사지 않을 것이고, 주식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이자율의 상승은 소비와 투자의 하락으로 이어졌다.

## 2. 미시경제학

일반적으로 미시경제는 개인의 행동, 개별 상품 등에 대해 탐구하는 학문이다. 수능에서는 과도한 수식으로 분석하는 문제가 나올 수 없기에, 개별 상품과 다른 분야를 연결시키거나 개인의 행동에 대해 분석하는 지문이 나오곤 한다. 그 중 금융상품과 조세를 다뤄보고자 한다.

### 2-1. 금융상품

#### 1) 보험

보험이란, 위험을 덜어주는 금융상품이다. 예를 들어 나에게 20억 어치의 집이 있는데, 약 40%의 확률<sup>3)</sup>로 불이 나 재산이 6억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이때 내가 화재보험처럼 손해의 일부분을 보상해주는 보험에 가입하면, 나는 만약 불이 나면 보험에 안 들었을 때보다 피해를 적게 입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험은 위험을 덜어주는 상품이다.

여기서는 보험에 안 들었을 때 기대자산과 보험에 들어서 위험이 덜어졌을 때 기대자산의 비교가 중요하다. 이것이 그 보험에 가입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요소이다.<sup>4)</sup>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는 사 고가 날 확률, 보험료, 보험금의 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가격을 정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계산할 때 예전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예전 생산/소비량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는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진 물가 지수로 이어진다. 물가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각자 의미가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을 것이다.

3)물론, 현실에서 이렇게 확률이 높진 않을 것이다. 그래도 벼락에 맞아 불이 나거나, 누가 가스버너를 안 끄고 가거나, 불꽃놀이를 하다 불이 날 확률은 무조건 존재한다.

4) 위의 경우에서 보험에 들지 않았을 때 기대자산은  $20 \times 0.6 + 6 \times 0.4 = 14.4$ 억이다. 보험에 들면 소정의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불이 났을 때의 자산 6억에 보험금을 받을 것이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0.6 \times (20억 - \text{보험료}) + 0.4 \times (6억 + \text{보험금})$ 이 된다. 이 두 기대자산을 비교해서 보험에 가입할지, 말지를 정한다.

-보험에는 생명보험, 화재보험, 자동차사고보험 등 일반적인 보험부터 다리, 손가락, 애완동물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영역의 위험을 다루는 보험이 있다. 각선미가 중요한 연예인이나, 피아니스트처럼 손가락이 중요한 사람들은 그런 보험에 가입해 혹시나 모를 위험에 대비할 것이다.

보험에서 또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냈을 때,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다. 이는 보험료율과 사고가 날 확률을 알아봐야 하는데, 이 부분이 17수능 '보험 지문'의 단락으로 등장했다.

본래 보험 가입의 목적은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는 데 있으므로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은 자신이 속한 위험 공동체의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공정할 것이다.

보험료율은  $\frac{\text{보험료}}{\text{보험금}}$ 로, 내가 받을 보험금 1원당 얼마만큼 보험료를 내는지 의미한다. 만약 보험료율이 40%라면, 내가 100만원을 보험금으로 받기 위해 40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이다.

보험이 공정하다면, 보험료율은 사고가 날 확률과 같다고 한다. 이는 보험료가 보험금의 기댓값이랑 같다는 것으로, 내가 받을 보험금의 기댓값이 내가 내는 보험료와 같다는 것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1) 나는 내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만큼 내고  
2) 보험회사는 그 회사가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돈을 받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양측 모두에게 공정하다는 의미로 '공정한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다.

2) 채권



채권은 일종의 “돈을 빌렸음”을 나타내는 증명서이다. 기업은 프로젝트나 다른 활동을 위해 돈이 필요한데, 자신의 지갑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나 기업에게서 돈을 빌려야 하는데, 이때 그들에게 돈을 ①얼마만큼 빌리며 ②언제까지 갚을 것이고 ③몇 %의 이자율로 갚을 건지 명시한 증명서를 주는 것이다.

이때 기업과 개인이 만나 돈과 증명서를 주고받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채권을 발행해 금융시장에 팔면, 개인이 그걸 사는 형태로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다. 이는 채권이 시장에서 사고 팔림을 의미하며, 채권의 시장 가격과 내가 기업에 빌려준 돈이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보면, 만기 3년의 이자율 10%, 100만원짜리 채권이 있다고 하자.

나는 3년 후에 기업이 내게 빌린 100만원과 이자 10만원을 합쳐 110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채권 시장에서 이 채권을 구매할 때, 그 가격은 100만원이 아닐 수 있다. 이 채권을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90만원에 살 수 있고, 110만원에 살 수도 있는 것이다. 나는 채권에서 얻는 이자의 이익 외에도, 싸게 채권을 구매해 더 비싸게 판매하여 그 차익을 얻을 수도 있다.

사람들은 이처럼 낮은 가격에 채권을 사서, 구매 가격보다 더 많은 원금+이자를 받는다. 그래서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액면가(채권에 적힌, 기업에게 빌려준 금액), 상환일(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그리고 표면금리(몇 %의 이자율로 갚을 것인지)인 것이다.

2011년 수능의 채권 지문에서, 다음과 같은 단락이 있다.

채권 투자자는 정기적으로 받게 될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각각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값들의 합계인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채권의 매입 가격을 뺀 순이익의 크기를 따진다. 채권 보유로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할 때는 금리를 반영한다. 가령 금리가 연 10%이고, 내년에 지급받게 될 금액이 110원이라면, 110원의 현재 가치는 100원이다. 즉 금리는 현재 가치에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준다. 따라서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의 현재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이에 따라 채권의 가격도 하락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처럼 수시로 변동되는 시중 금리는 현재 가치의 평가 구조상 채권 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

여기서 우리는 채권의 표면금리는 고정된 이자이지만, 시장의 시중금리는 변동하는 이자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리고 채권 가격과 시중금리가 반비례한다는 점을 알아보자.

우선, 일반 시장금리가 오르면 사람들은 굳이 채권을 사지 않고 그냥 예금에 넣을 수 있다. 채권을 사나 예금에 넣으나 거기서 거기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때 사람들이 채권에 대해 덜 사려고 하므로, 사람들이 채권에 대해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의사, 즉 수요는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는 채권이 더 싼 가격에 거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기출 지문에 나온 내용처럼, 구매자는 채권을 살 때 채권의 현재가치와 매입가격을 고려한다. 이때 채권의 현재 가치를 어떻게 판단할까? 바로 일반 시중금리를 활용해 구할 수 있다.

현재가치를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내가 은행에 예금해 3년 뒤 A원을 받는다면, 2년 뒤에는  $\frac{A}{1+r}$  원을 받을 것이다.<sup>5)</sup> 1년 뒤에는  $\frac{A}{(1+r)^2}$  원을 받을 것이므로, A원의 현재 가치는  $\frac{A}{(1+r)^3}$  가 된다.

이를 채권에 적용해보자. 이자율이 높을수록 채권의 현재가치는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현재가치가 낮으면 사람들이 잘 사려 하지 않으므로, 수요가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된다. 이런 이유로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비례하는 것이다.

3) 조세와 그래프의 이동

조세: 조세는 말 그대로 세금이다. 조세의 종류로는 소비세(물건을 살 때 물건 하나하나에 부과하는 세금), 부가가치세(전체 금액의 몇 %를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 편의점 영수증을 보면 전체 가격 10%의 VAT, 즉 부가가치세가 있을 것이다), 인세(우표 등 종이에 부과하는 세금), 주류세(술에 부과하는 세금) 등등 많은 세금이 있다. 조세는 어떤 상품이 덜 소비되거나 생산되기 위해, 그리고 정 부가 조세를 거둬 돈을 더 마련하기 위해서 상품에 부과한다.

이 중 평가원이 다룬 소비세에 대해 알아보자.

5) 이자에는 복리계산법과 단리계산법이 있다. 내가 100만원을 10%의 이자로 예금했을 때, 단리로 계산하면 1년마다 10만원의 이자를 받는다. 복리로 계산하면  $100(1+0.1)^n$ 원을 전체 금액으로 받게 된다. 금융상품에서는 복리 계산법이 많이 쓰인다.

정부는 어떤 상품(예로, 사과라 하자)이 사회에서 덜 소비되도록 만들고 싶다. 또는 어떤 상품에 조세를 걷어 그 세금을 정부의 수입으로 쓰고 싶어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 사과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을 감소시키는 변화가 생기고, 세금이 정부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격과 소비량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그래프의 이동을 통해 알아볼 수 있고, 이 부분이 밑의 2009년 6월 모의고사 지문으로 등장했다. 뒤의 설명은 어려울 수 있으니, 읽어봐도 이해가 잘 가지 않으면 경제 교과서나 네이버에 '수요공급 곡선' 검색을 한번 해보길 추천한다.

정부가 불펜에 자루당 100원의 물품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한다고 하자. 세금 부과 전에 자루당 1,500원에 100만 자루가 거래되고 있었다면 생산자는 총 1억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손실을 입게 될 생산자는 1,500원이라는 가격에 불만을 갖게 되므로 가격을 100원 더 올리려고 한다. 생산자가 불만을 갖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가격이 한없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가격 상승으로 생산자의 불만이 누그러지지만 반대로 소비자의 불만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결국 시장의 가격 조정 과정을 통해 양측의 상반된 힘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 이르게 되며, 1,500원~1,600원 사이에서 새로운 가격이 형성된다. 즉 생산자는 법적 납부자로서 모든 세금을 납부하겠지만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자루당 실제 부담하는 세금을 그만큼 줄이게 되는 셈이다. 반면에 소비자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므로 가격이 상승한 만큼 세금을 부담하는 셈이 된다.

예로 소비자에게 조세를 매긴다고 해보자. 사과 소비자의 수요함수가  $P = -Q + 10^6$ 일 때, 단위당 3원의 세금을 매겼다.

이때 1개를 9원의 가격에 사던 소비자의 최대 지불의사는 여전히 9원이다. 하지만 이 9원에는 조세가 포함되어 있다. 소비자는 예전처럼 1개를 9원에 사려고 하나, 조세를 포함해 9원의 가격에 1개를 사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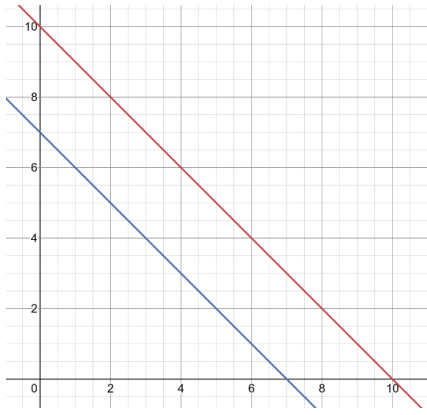
이처럼 소비자는 1개를 살 때 실질적으로 9원(6원에 세금 3원을 더함)을 지불하나, 예전에 소비자의 실질적 지불의사는 9원이었으나 지금은 6원이 된다.

수요는 소비자의 최대 지불의사이다. 그런 수요량을 모아놓은 것이 수요곡선이고, 조세는 모든 Q에 매겨지므로 수요곡선이 이동하게 될 것이다.<sup>7)</sup> 이처럼 모든 수요량(Q) 수준에서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이 3씩 떨어지므로, 수요함수는 왼쪽으로 평행이동 할 것이다. ( $P = -Q + 7$ )

6) 이 배경지식 첫 장의 수요공급 그래프를 보면 가로축에 상품량 Q, 세로축에 가격 P가 있다. 이는 x-y 평면의 1사분면과 같다고 생각하자!

7) 모든 Q에 대해 P가 달라진다는 것은 모든 x에 대해 y가 일정하게 달라진다는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그래프의 평행이동이 일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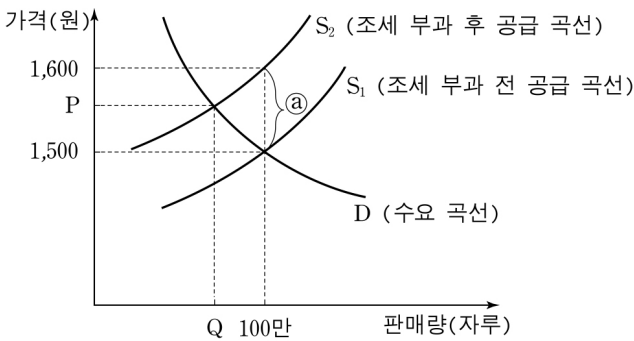


위의 그래프에서 보듯이, 바깥의 선에서 안쪽으로 수요곡선이 들어오는 것이다.

반대로 공급자에게 3원의 세금을 매긴다면, 공급자는 1개를 팔기 위해 최소한 받아야 하는 금액을 더 높게 잡을 것이다. 만약 사과 1개에 3원의 가격을 예전에 받았다면 이젠 6원을 받으려 할 것이다. 그래야 공급자가 지금 실질적으로 받는 가격은 3원이 되기 때문이다.(6원에서 세금 3원을 빼면 3원).

모든 공급량 Q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므로 공급곡선 또한 왼쪽으로 이동한다. 그런 양상이 2009년 6월 모의평가 44번에 나타나 있다(참고로 문제에서 말하는 [A]는 “정부가 불펜에 자루당 100원의 물품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한다~”는, 5~6페이지의 박스 내 문단이다)

44. [A]를 <보기>와 같이 그래프로 그렸다. 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처럼 조세 부과로 인해 수요/공급 그래프가 움직일 수 있다. 수요/공급 그래프의 움직임은 조세뿐만 아니라 보조금, 소비자의 소득의 변화 등 다른 요소들에 의해 이뤄지기도 한다.

추가로 덧붙이자면, 내 사과의 수요를 볼 때 사과 가격의 변화는 그래프 위 점의 변화를 야기한다. 하지만 그 외 모든 요소들(보조금/ 내 소득 변화/ 딸기의 가격 등등)은 그래프를 이동시킬 것이다.8)

이런 그래프의 이동이 미시경제의 핵심이나, 그래프 자체를 등장시키는 경우는 평가원에서 점점 드물어지고 있다.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어떤 과정으로 이어지는지, 일련의 경제적 논리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순서와 과정을 유의하자!

8)  $y=x+1$ 이라는 식에서  $y=1$ 에서 2로 이동했다고 하자. 이는 그래프를 따라서 움직였을 뿐이다. 하지만 다른 요소들은 모든  $x$ 에 대해  $y$ 의 변화를 일으켜 그래프의 평행이동을 일으킨다

## 3. 거시경제학

거시경제는 보다 넓은 단위에서 경제적 활동에 대해 알아본다. 구체적으로, 국가의 수출입과 같은 활동부터 물가와 고용 등 큼직한 주제에 대해 다루는 분야다. 물론 국가와 같은 집단은 개인의 총합으로 이루어지므로 거시경제 역시 미시경제의 기반 위에서 논의가 진행된다. 거시경제는 변수가 연쇄적으로 움직이는 과정이 많고, 잘 들어보지 못한 주제가 많기에 더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다. 그렇기에 일련의 순서와 과정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거시경제학 부문에선 환율과 그 영향, 경기와 경제안정화 정책으로써 통화정책에 대해 다룰 것이다.

## 1) 환율과 수출입

환율의 개념은 <기초 중의 기초> 부분에서 다룬 바 있다. 해외 돈 1단위의 가격이라는 환율의 개념과 변동의 영향은 2011년 9월 모의평가에서 다음과 같이 출제됐다.

일반적으로 환율\*의 상승은 경상 수지\*를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테면 국내 기업은 수출에서 벌어들인 외화를 국내로 들여와 원화로 바꾸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우리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을 다소 낮추어도 수출량이 늘어나면 수출액이 증가한다. 동시에 수입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은 상승하여 수입품을 덜 소비하므로 수입액은 감소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환율 상승이 항상 경상 수지를 개선할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 환율: 외화 1단위와 교환되는 원화의 양.

\* 경상 수지: 상품(재화와 서비스 포함)의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결과.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클 때는 흑자, 작을 때는 적자로 구분함.

사례를 들어 환율의 변동과 수출입 변화를 알아보자. 예를 들어 작년 1달러와 교환되는 원화가 1,000원이었다고 하자. 그런데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들이 전보다 달러를 더 많이 가지고 있으려고 한다.<sup>9)</sup> 그래서 달러의 수요가 증가해, 환율은 1달러에 1,200원으로 올랐다고 하자.

이때 A기업은 미국에 장난감을 수출하고 있었다. 장난감은 한국에서 12,000원으로, 작년에는 미국에서 12달러에 팔렸다. 하지만 올해 환율 변동으로 인해, 12,000원의 장난감은 미국에서 10달러에 팔리게 되는 것이다. 한국에서 가격은 변함이 없다. 하지만 미국에서 판매가는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떨어지게 된 것이다. 가격이 떨어졌으므로, 미국인들은 A기업의 장난감을 더 구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수출은 증가한다.

그러면 수입은 어떨까? 한국은 미국 B기업의 소고기를 수입하고 있다. 소고기는 미국에서 \$10으로, 작년에는 10,000원의 가격에 한국에서 팔렸다. 하지만 환율이 변동하고 난 뒤 \$10는 12,000원이 된다. 가격이 작년보다 비싸진 것이다. 그래서 한국 소비자들은 소고기를 덜 구매하게 되고, 일반적인 경우 수입은 감소한다.

이렇듯 환율이 상승하면 일반적으로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한다. 그래서 위의 본문에 “일반적으로 환율 상승은 경상수지를 개선한다”고 한 것이다. 물론, 환율이 상승해서 외국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외화표시 가격이 떨어졌어도 판매량이 크게 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래서 수출액이 증가하지 않아<sup>10)</sup>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예외적인 경우 또한 존재한다. 이 예외적인 경우는 가격 변화에 대한 상품 수요의

9) 이는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이 더 안전한 자산을 가지고 있으려 하기 때문이다. 금, 다이아, 석유 등 실물자산과 강대국의 화폐, 즉 달러, 유로, 파운드 등이 안전자산의 유형이다.

10) 어떤 쌀이 가격이 A기업의 장난감처럼 싸졌더라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만큼의 쌀만 구매하기에 소비량은 거의 비슷할 것임. 극단적인 경우 변하지 않을 수 있음. 그렇기에 수출액은 하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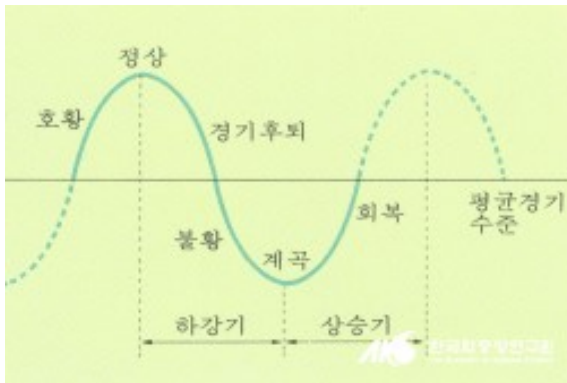
변화를 살펴봐야 한다. 이 부분 또한 기출 본문에 서술로 등장한다.

첫째, (환율 변동에 따른) 상품의 가격 조정이 일어나도 국내외의 상품 수요가 가격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수요 구조에 따라 경상 수지는 개선되지 못하기도 한다. 수출량이 증가하고 수입량이 감소하더라도, ㉠경상 수지가 그다지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2) 경기와 경제안정화 정책

①경기의 개념

경기는 경제의 상태를 의미한다. 경제는 안정된 상태에만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인다. 경제가 활성화됐고, 소비·투자·물가 등이 모두 활발한 상태를 호황이라 한다. 반대로 경제가 얼어붙고 위축돼 실업이 증가하고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하는 때를 불황이라고 한다. 밑의 그림에서 보이듯 호황은 정상(頂上, 가장 꼭대기)을 향해 달려가는 기간이고 불황은 저점을 향해 달려가는 상황이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경기는 호황-하강-불황-회복의 순환이 반복된다.<sup>11)</sup>



② 경제안정화

정부와 중앙은행은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길 목표로 한다. 이는 경기변동에서 저점, 즉 불황에 있으면 이를 회복으로 끌어올리고 너무 호황이 지속되면 살짝 끌어내리는 것으로 이어진다.<sup>12)</sup> 이를 “경제안정화”라고 하며, 이때 정부와 중앙은행은 경제 성장 및 물가 안정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 이를 경제안정화 정책이라 하며, 18년 6월과 20년 6월에 각각 나온 ‘통화정책’과 ‘금융정책’이 있다. 이 중 통화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전통적으로 통화정책은 금리와 관련이 있다. 이자율을 조정하여 다른 변수들을 연쇄적으로 움직이고, 경기에 대해 원하는 효과를 달성하려는 것이다.

금리가 오르면 사람들은 소비와 투자를 줄이고, 새로운 경제활동을 잘 하지 않음을 2페이지 ‘금리’ 부분에서 설명했다. 이때 정부와 중앙은행은 금리를 어떻게 조절할까? 여러 방법이 있지만, 그 중 가장 많이 쓰이며 기출문제에 출제된 ‘공개시장조작’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11) 보통 호황은 물가 상승, 불황은 물가 하락의 상태이다. 이 물가 상승을 그 유명한 ‘인플레이션’, 물가 하락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한다.

12) 경제가 너무 활발하면 이는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져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힘들어한다.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 가격이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과 같은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통화정책 수단인 ‘공개 시장 운영’은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 기관을 상대로 채권을 매매해 금융시장의 이자율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기준 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키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수하면 이자율은 하락하고, 채권을 매도하면 이자율은 상승한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어 경기가 활성화되고 물가 상승률이 오르며, 이자율이 상승하면 경기가 위축되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 이와 같이 공개 시장 운영의 영향은 경제 전반에 ㉠ 파급된다.

기출 지문의 첫 문단에서 다루는 통화정책과 공개시장조작의 개념이다. 중앙은행은 우선 지금 경기가 과열됐는지, 위축됐는지,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기준 금리<sup>13)</sup>의 바람직한 수준을 정한다. 이제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조작’이라는 조치를 통해 이자율을 조절하려고 한다.

거창해 보이지만, 공개시장조작은 중앙은행이 공개적으로 시장에 직접 참여해 시장원리를 통해 금리를 조율하는 것이다. 예로 중앙은행이 채권시장에서 채권을 매입(구매)하면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게 되고, 자금의 공급량이 많아짐에 따라 수요-공급 원리에 의해 이자율은 하락하게 된다. 은행이나 개인 등 자금 공급자들이 누군가에게 증가한 자금을 팔려고(빌려주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이 보유한 채권을 매도(판매)하면 이와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

중앙은행은 이런 일련의 통화정책을 행사할 수 있다. 이제 그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들은 무엇일까? 바로 그 정책을 시행하는 시점과 그 정책의 효과를 증폭시켜줄 외부 요소들일 것이다.

시점에 대해 알아보면, 정책을 언제 시행해서 그 효과가 언제 나타나는지가 중요하다. 이를 ‘정책의 선제성’이라고 하며, 지문의 두 번째 문단에서 등장한다.

먼저 통화정책이 선제적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경제 변동을 예측해 이에 미리 대처한다는 것이다. 기준 금리를 결정하고 공개 시장 운영을 실시하여 그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때까지는 시차가 발생하는데 이를 ‘정책 외부 시차’라 하며, 이 때문에 선제성이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서야 비로소 기준 금리를 인하한다면, 정책 외부 시차로 인해 경제가 스스로 침체 국면을 벗어난 다음에야 정책 효과가 ㉡ 발현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경기 과열과 같은 부작용이 ㉢ 소반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 같으면 그에 앞서 금리를 내려 경제를 진작(활성화)시키고, 경제가 과열되는 것 같으면 그에 앞서 금리를 올려 경제를 진정시켜야 한다. 문제는 그 타이밍을 적절하게 잡는 것이다. 위의 경기변동 그래프를 다시 보자.

만약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그래프가 하강할 때)가 막 시작할 때에야 허둥지둥 늦게 기준금리를 인하했다고 하자. 그러면 정책 외부 시차 때문에 효과가 나중에 나타날 것이다. 만약 그 효과가 회복하는(저점에서 올라가는) 중 나타났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경제가 너무 과도하게 회복되어 물가가 폭등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고, 경제가 지나치게 과열될 수 있을 것이다.

13) 관심있는 사람은 ‘콜 금리’에 대해 찾아보길 바란다. 그냥 쉽게, 어떤 하나의 금리에 채권 등 금융상품의 이자율을 맞추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자.

마지막으로, 정책의 효과를 증폭시켜줄 외부 요소로는 '민간 신뢰성'이 등장한다. 이는 사람들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해 믿음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만약 사람들이 중앙은행을 믿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어떤 경제가 내리막길을 향해 가고 있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려 소비와 투자 및 기타 경제적 활동을 장려하려 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중앙은행의 정책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 예상하고, 닥쳐올 위기에 대비해 지갑을 열지 않고 돈을 보유하려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다.

-----  
 이상으로 미시경제와 거시경제의 일부분에 대해 다뤄왔다. 앞으로도 경제학에서 출제가 가능한 부분은 정말 많다. 이에 대비해 배경지식을 쌓아 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경제적 논리, 즉 특정 변수들의 연쇄적 움직임이나 변화 등에 기본적인 지식을 알아 두면 매우 유용하다. 추가적인 자료를 찾는 사람들을 위해 일부 추천해보면

1)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사실 이게 진짜 좋다. 얇고, 필요한 기초적인 개념은 전부 들어있고... 시간이 되면 한 번쯤 읽어볼만 하다

더 시간이 되는 사람들은 2) 한국은행,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2019, 한국은행 웹사이트에서 무료 pdf 제공) 3) 죽은 경제학자들의 살아있는 아이디어(토드 부크홀츠) 등을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